

물리적 '길' 과 철학적 '길' 의 조응, 방랑자의 숙명을 타고난 '히피' 의 일기

자신을 '히피'라 부르는 이지상 씨(45)에게 1988년은 잊을 수 없는 해다. 남들이야 '서울 올림피아'의 해로 기억하지만 그에게는 그토록 갖고 싶어했던 여권을 손에 넣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던 해인 것이다.

"그때만 해도 만 삼십 세가 안 되면 해외여행을 할 수 없었거든요. 정말 세상은 오래 살고 불 일이다 생각하면서 여권을 기습에 꼭 겨안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대만으로 떠났죠. 그 후 1989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 완전자유화 가 이루어졌죠."

항공사 직원이었던 그는 천성적으로 '여행'을 동경해 왔다. 앞서담 뒤통수를 보면서 교장선생님의 훈시를 듣고, 똑같은 머리와 복장을 하고 다녀야 하는 학교생활에서 탈출하고 싶어했던 학생시절에 아버지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김찬삼의 《끝없는 여행기》는 '그냥 저 넓은 세계로 탈출하고 싶다'는 욕망을 더 부추겼다.

"저를 둘러싼 세상은 빈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막처럼 삭막하고 회전무마처럼 늘 똑같이 돌아갔죠. 그때는 여길 탈출하면 신천지가 펼쳐질 것이라는 꿈을 갖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안정된 직장과 앞으로 펼쳐질 밝은 미래를 짐쳐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고민을 하고 또 해도 떠나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닿았다. 그는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인간은 동물과 초인 사이에 놓인 빛줄이며 심연 위에 놓인 빛줄이다. 건너가는 것도 위태롭고, 지나가는 도

중도 위태롭고, 뒤돌아보는 것도 위태롭고, 그 위에 떨어져 머물러 있는 것도 위태로운 일이다"는 구절을 떠올리면서 "어차피 쓰러지는 몸이면 몰락하고 이 탈해보자"고 마음먹었다. "부모님, 당신 지식의 욕망이 이리도 강합니다"라고 말하며 회사를 그만둔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와 결정한 일, 발길 닿는 대로 자유롭게 '길'을 찾아보자고 생각했다. 이후 그는 아시아, 인도, 중동, 유럽, 아프리카, 러시아 등을 다녀오면서 《실크로드 여행》, 《거울의 심장》, 《슬픈인도》, 《나는 늘 아프리카가 그림자》 등의 책을 썼다. 모두 해외여행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낯선 곳에 떨어지는 기분, 이방인이 되는 그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관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죠. 그 맛을 알면 마약같은 느낌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는 국내여행보다 해외여행을 즐겼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물론 탈출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컸던 탓도 있었다. 사실 그는 '길'을 위해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 여행을 떠날 때만 해도 클리만 특별한 사람들이 쓰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저 히피처럼 방랑하다가 일기를 쓰는 게 전부였다.

"결과적으로 당시 일기, 관찰기록 등이 글의 초고가 됐죠. 특히, 외롭고 쓸쓸한 지역에 머물 때 메모를 많이 남겼습니다. 여행을 시작할 지 4.5년 정도 되었을 때 여행이 일상이 되면서 회의감이 밀려들더군요. 부모님께 죄책감도 들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되었죠. 결국 여행담이라고



보다는 여행을 통해서 제 정체성 고민을 했던 과정들을 책으로 옮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다녀온 곳을 또 찾는다. 인도는 다섯 번, 터키는 세 번을 다녀왔다. 이유는 없다. 발길이 닿는 곳 중 마음이 끌리는 곳이면 어디든 다시 가보는 것 뿐이다. 대부분의 여행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시작됐다.

“의도한 것은 아닌데 거울에 많이 떠났다는 투정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여행에 나서는 사람이 적거든요. 경비도 덜 들고 관광지 분위기가 가리앉아 여행하는 맛이 납니다. 저는 주로 사람들이 안 찾은 곳, 개방초기의 여행지를 좋아합니다.”

그는 '길'을 주제로 삼고 글을 쓴다. 길은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숨쉬는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지상 씨 내면에 있는 마음의 '길'을 뜻하기도 한다. 그 길 중에 가장 애착을 가졌던 땅은 인도다. 인도는 그에게 '한개'와 같다. 한 가지 이미지로 규정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아무나 붙잡고 말을 거는 걸인들, 사소한 것을 속이는 관광지 상인들, 유유자적은커녕 우리보다 더 끈적끈적하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긴 명상이 있는 별천지가 아니구나” 생각했다. 그러나 3개월 이상을 지내다보니 차츰 인도 가나 자신과 세상을 '체념'하고 '방관'할 수 있는 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처음 부딪혔을 때는 환상이 깨지는 충격 때문에 양극단 중의 부정적인 면이 크게 확대되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긍정적인 면들이 와닿기 시작했죠. 인도는 애증이 가는 공간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짜증이 나다가도 거지들이 열 명, 스무 명이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걸 보면 마음이 이프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꽃 한 송이를 줄 때면 알 수 없이 정합니다.”

사람들은 특정 여행지에 대해 '안다' 하는 순간 방심한다. 책, 방송매체, 소문으로 고쳐된 이미지에 속기도 하고 이미지 때문에 겁을 내는 경우도 있다. 이지상 씨는 “여기도 이렇게 추운데 시베리아를 어떻게 다니냐”는 말을 우

습게 생각한다. 그의 말대로라면 사람이 사는데 못 갈 곳은 없는 것이다.

그는 최근 터키와 동유럽 일대를 다녀왔다. 터키를 처음 갔을 때 정치적 인문제를 때문에 우울한 분위기가 감돌았는데 지금은 많이 극복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들을 담은 《길 위의 천국 터키》, 《동유럽 여행기》를 준비중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몽상 혹은 낭만적인 시각을 버렸으면 합니다. 여행은 현실을 보러가는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현실만 따르면 안 되고 현실을 놓치지 않으면서 자신의 꿈, 희망 등 자기색을 잘 배합한 여행을 하세요. 그 후에는 글도 쓸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는 여행을 너무 달콤하게 혹은 쓸쓸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권한다. 그래서 균형감을 기르라는 충고도 잊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출간되는 외국여행서 중에는 여행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데 급급한 대중적인 책이 많다. 이지상 씨는 이에 부정적이지 않다. 그렇지만 여행은 그것만이 아니라면서 여행을 직접 체험한 후 겪은 고민들을 풀어낸 이야기를 늘어놓는 적극성을 여행자 스스로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인다.

“어떻게 생활하느냐구요? 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 생활을 걱정하죠. 그나마 다행인 게 올해는 경기대학교 관광학부에서 '세계와 여행' 시간강의를 맡았습니다. 학생들의 여행계획서를 보니 오히려 제가 신이 나고 배울 부분이 많더군요.”

그는 자신을 여행작가라 하지 않고 “그냥 히피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하면서 “늘 언젠가 저 길을 가보리라”는 꿈을 가진 방랑자의 숙명을 타고났다고 규정한다. 그의 글에 여행지의 이국적인 화려함보다는 소박한 삶의 진실, 고민들이 녹아있는 것도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길'과 철학적 의미의 '길' (나자신)이 조응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